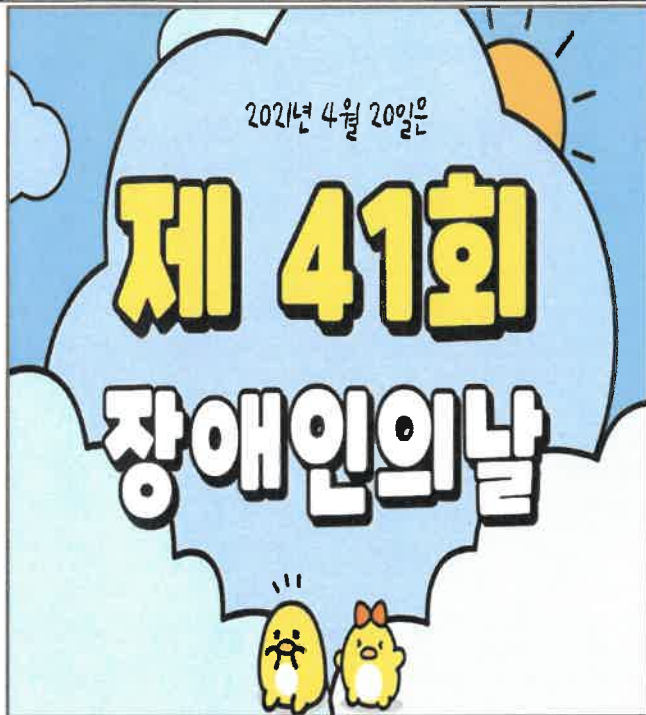




삼례동통신

삼례동초등학교
2021.4.23.

2021학년도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에 관한 가정통신문



도로의 노란 점들..도대체 뭘까?



톡톡, 톡톡, 톡톡. 길을 걷는 시각장애인들은 하얀 막대기로 길을 두드리면서 걸어요. 무엇을 두드리는 걸까요? 길에 정답이 있습니다. 울룩불룩 튀어나온 노란색의 보도블럭인데요, 시각장애인들이 도로의 상황을 파악하도록 돕는 **시각 장애인 전용 도로**랍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지팡이로 바닥을 한 걸음에 두 번씩 톡톡 치면서 점자블록을 따라 걷습니다. =모양의 점자 블록은 앞으로 직진하라는 뜻이고, 동그란 무늬가 새겨진 블록은 멈추라는 뜻이에요. 점자블록은 도로의 상황과 방향을 알려 주고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걷기 위해 꼭 필요해요. 하지만 깨지거나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과, 점자블록 위를 가로막는 불법 설치물이 많아서 시각장애인들이 아찔한 순간들이 많다는 사실.. 이렇게 중요한 점자블록, 잘 설치되도록 매의 눈으로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이란?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로,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하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에 대해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정한 날입니다. 평소에 잘 모르던 장애인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에 대해서, 오늘 하루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장애에 대한 편견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절대! 쓰지 말아야 할 ‘장애인 차별 용어’ 모음

일상에서 가끔 혹은 자주 쓰이지만, 그 이면에는 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장애 비하 용어들을 모아봤습니다.

병신, 애자, 장애자, 불구자	→ 장애인
맹인	→ 시각장애인
농아	→ 청각장애인
간질	→ 뇌전증
정신병자	→ 정신질환자
정상인	→ 비장애인
귀머거리	→ 청각장애인
병어리	→ 언어장애인
절름발이	→ 지체장애인
장애를 앓고 있는	→ 장애를 갖고 있는
불구가 되다	→ 장애를 갖게 되다
장애를 극복한	→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님)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들이 우리 곁에 있는 장애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단어 하나부터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배리어 프리’ 사회로 다가가는 한 걸음입니다!

반짝 상식!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잠깐은 괜찮겠지?

안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리가 없더라도 일반 차량은 절대 주차를 해선 안됩니다. 일반 차량이 주차를 했다가 적발되었을 땐,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사진처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진 않았지만 그 앞을 가로막고 주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벌금이 10만원이지만, 이렇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에는 벌금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벌금을 피해보려다가 5배의 벌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장애인주차구역은 항상 비워놓읍시다!

편견 깨는 장애인 유튜버들

보이지 않는다고 영상을 못 찍는 것도, 소리가 없다고 내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장애인 유튜버들을 알아보자.



‘달콤살벌 농인부부’ 청각장애인 부부의 솔직담백한 일상 이야기를 담은 채널. 장애인 부부도 다른 부부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개설했다고 한다.



‘원샷한술’ 고등학생 때 희귀질환으로 시력을 잃은 김한술씨의 채널. 시각장애인이 지하철 타는 법,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법 등 비장애인들이 한번쯤 궁금할만한 시각장애인의 일상 이야기를 담아 인기를 끌고 있다.



‘굴러라 구르남’ 뇌성마비 고등학생도 똑같다.. 공부 안 하는 건.. 뇌성마비 고등학생의 일상 이야기를 담아 인기를 끈 채널. 휠체어로 제주도 여행하기, 휠체어 타고 롯데월드 가기, 휠체어 꾸미기 등 독특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해도 입 모양이 보여요!

마스크로 가려진 입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 다들 있지 않나요? 하지만 특히 더, 일상생활에 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각장애인입니다. 청각 장애인들은 입술 모양을 읽으며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버린 삶이 더욱 불편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발명품,



바로 ‘**립뷰 마스크**’입니다. 청각장애인 뿐 아니라 청력이 좋지 않은 노인들, 한글을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에게도 효과적인 발명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길가다 입이 뚫린 마스크를 봐도 놀라지 말자구요.



오티스타를 소개합니다!

자폐성장애는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입니다. 자폐인들에게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언어적 표현보다 시각적 표현에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자폐인 중에는 그림을 좋아하고 잘 그리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오티스타는 자폐인이 자신의 재능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자폐인들의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오티스타는 지난 2012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8회의 디자인 전시회를 개최했고, 롯데그룹, 메가스터디, 삼성 갤럭시, 다이소 등과 협업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현재는 12명의 자폐성 장애인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폐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자립을 응원해주세요!



오티스타 디자인스쿨 학생 작품

장애인 스포츠, 골볼과 보치아 알아보기

스포츠 선수들의 땀과 열정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경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선수들의 올림픽인 패럴림픽 종목은 올림픽과 비슷하지만, 패럴림픽에만 있는 유일한 종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골볼과 보치아입니다.



골볼은 시각 장애인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마다 시력 정도가 다르므로 눈가리개를 쓴 3명의 선수가 무게 1.25 kg의

공을 굴려서 상대의 골대에 넣는 경기입니다. 공을 어떻게 찾나구요? 공 안에 방울이 들어 있어서 이 방울 소리를 듣고 움직입니다. 방울 소리에 선수들이 집중해야 해서 경기 중에는 응원이 금지된답니다.



보치아는 뇌성 마비 등의 중증 지체장애 선수들이 참가하는 경기로, 구슬치기와 비슷해요.

표적인 공을 먼저 던지고, 그 공에 가깝게 자신의 공을 많이 던지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경기 내내 상대의 공을 막고 자신의 공은 가까이 보내기 위한 치열한 전략이 관전 포인트죠.



그림책 추천 「찾아봐 조지야」

강아지조지는 다른 강아지들처럼 ‘멍멍’하지 않고 ‘야옹, 짹, 꿀꿀, 음매’하고 짖는다. 결국엄마손에

이끌려 병원까지 가게 된 조지. 조지는 왜 ‘멍멍’하고 짖지 않을까? ‘멍멍’하지 않는 강아지 조지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배리어프리’ 영화란?

기존의 영화에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해설**과 대사, 음악, 소리 정보를 알려주는 **자막**을 넣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영화입니다. 사단법인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영 영화와 상영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